

# 치매관리정책의 언론보도 경향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치매예방을 중심으로

최인규<sup>1</sup>, 서경도<sup>2\*</sup>, 김덕환<sup>3</sup>, 최주근<sup>4</sup>

<sup>1</sup>대구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조교수, <sup>2</sup>금오공과대학교 경영학과 연구교수, <sup>3</sup>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sup>4</sup>대구과학대학교 국방기술행정과 강사

## A Network Analysis on the Trend of Pressing Dementia Management Policy: Focusing on the Prevention of Dementia

In-Kyu Choi<sup>1</sup>, Kyung-Do Suh<sup>2\*</sup>, Duck-Hwan Kim<sup>3</sup>, Ju-Keun Choi<sup>4</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Police Security Administration, Daegu Science University

<sup>2</sup>Lectur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sup>3</sup>Researcher, Division of Police Security Administration, Daegu Science University

<sup>4</sup>Lecture, Defence Technology & Administration, Daegu Scienc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치매관리정책에 대한 언론보도의 경향을 파악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치매예방실천, 인식개선, 치매관리지원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절차와 방법으로는 치매관리정책과 관련한 주제어의 인용횟수, 그리고 중심성·매개성을 중심으로 한 주제어 간 연결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생활 속 치매 예방 실천 지원에서 지역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설명하는 '미시적' 관점이 필요하다. 둘째,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은 치매관리정책 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개인적인 문제로 한정하는 정책적 용어의 사용보다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3대 치매 고위험군 관리 및 지속적 치매조기발견 지원을 통한 '치매관리정책'과 같은 핵심어의 네트워크 구조는 향후 연구에서도 학계 간 융합연구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인식 및 정책성과, 그리고 선진국의 치매관리정책 흐름을 고려했을 때 '치매관리, 예방'을 포함한 치매관리정책 현상은 국지적·일시적인 것이 아닌 향후 치매관리정책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주제어 : 고령화, 치매관리정책, 치매예방, 지역사회실천, 텍스트분석, 융합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endency of media reports on the dementia management policy in Korea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such as prevention of dementia, improvement of awareness, and management of dementia through network analysis. We analyzed the linkage structure between the main texts centered on the number of citations of the main language related to the dementia management policy and the centrality and mediation as the research procedures and metho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a 'micro' perspective is needed to explain practically. Second, it is desirable to understand the dementia management policy in the context of community. Third, the network structure of key words such as 'dementia management policy' suggests the possibility of research study in academic research in future research. Therefore, the phenomenon of dementia management policy will contribute to the direction of future dementia management policy, not local or temporary.

**Key Words** : Aging, Dementia Management Policy, Prevention of Dementia, Community Practice, Text Analysis, Convergence Research

\*Corresponding Author : Kyung-Do Suh(bumsoskd@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6, 2018

Revised October 24, 2018

Accepted November 20, 2018

Published November 28, 2018

## 1. 서론

노령화지수(0-1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는 2010년 68.0보다 95.1로 증가해 노령화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며 일본 보다 무려 10년 빨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추세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고령화는 노인성 질환의 증가로 이어지는 데 특히 치매 환자는 고령화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는 노인성 질환의 증가로 이어지는 데 특히 치매 환자는 고령화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2 치매유병률조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64만 8천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1]. 이와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17년마다 치매 환자수는 두 배씩 증가해 2024년에는 100만, 2041년에는 2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2].

이와 같은 치매환자의 급증은 사회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치매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3년 기준 국가 치매 관리 비용은 약 11조 7천억 원으로 실질 GDP의 약 1.0% 수준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 2014). 이는 2050년에는 43조 2천억 원으로 증가해 실질 GDP의 약 1.5% 수준에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3]. 이처럼 노령화 사회와 이로 인한 노인성 질환, 특히 치매 환자의 발생은 한국 사회의 지속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

고령화 사회가 반드시 선진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과 함께 개발도상국도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어 고령화 사회라는 공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공조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치매는 치료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발병 가능성을 상당부분 낮출 수 있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초기에 발견될 경우 치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치매 위험 감소와 치매 예방을 위한 행동 변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신체활동, 교육수준, 고혈압 관리, 금연, 비만 관리, 당뇨관리 등이 치매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4].

우리나라는 치매 위험요인 차단과 치매 조기 발견 노

력을 통한 치매 예방의 중요성 및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제1차 및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 강화’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사업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는 못해 향후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략을 보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예방관리 서비스 및 정책개발과 한국인 생활습관 및 위험요인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치매사업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에 이루어진 다양한 연구에 대한 종합적 분석 및 통계 산출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이를 위한 정부와 학계의 노력이 부족하였다.

치매위험요인 경감을 통해 치매예방을 강화를 통해 노인치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의 다각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위한 학계의 관심과 학문적 지원이 필요하다. 학술연구는 현대의 현상 및 문제를 다루며, 그 원인과 배경이 된 과거에 대한 탐색적 고찰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예측과 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치매관리정책에 관한 학술연구의 흐름을 연구한다는 것은 새로운 연구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학문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지역사회 치매관리정책에 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 성과는 가시적이지 않다. 지난 17년간 치매관리정책과 관련한 사회과학분야의 국내학술지 게재논문을 분석한 결과 전체 1,378건의 논문 중 ‘치매관리정책’과 관련한 논문 수는 118건(16위)에 불과하였다[5]. 그나마도 2000년대 이전 치매관리정책, 즉 치매예방활동 현상을 연구한 논문이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지역사회 치매관리정책에 관한 최근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실천적 예방활동 방향의 전환을 시대의 주요흐름으로 인식하기보다 치매관리정책과 같은 정책적 산물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치매관리정책에 대하여 언론보도의 핵심 주제를 통한 정책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외환위기와 관련해 지역사회 치매관리정책이 가시적이었던 2000년대 후반부터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본격화된 최근까지의 국내 정책동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치매관리정책과 관련한 주제의 인용횟수, 그리고 중심성·매개성을 중심으로 한 주제어 간 연결

구조를 분석한다. 주요 시기별로 치매관리정책에 관한 연구관점이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향후 연구의 과제는 무엇인지 모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치매관리정책의 시대적 흐름에 대응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이론적 배경

### 2.1 노인인구의 변화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44만6천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은 13.8%인 707만6천명으로 2060년에는 41.0%까지 증가될 전망이다(2017년 기준).

남녀성비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여자의 비중은 57.5%로 남자 42.5%보다 15% 많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여자 비중은 감소하고 남자 비중은 증가하여 2060년에는 그 차이가 4.6%로 적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 성비(여자인구 100명당 남자의 수)는 73.9명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에는 91.3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6].

Table 1. Elderly population size and structure change

years	Total population	65 years old or older	Man	Woman	Sex ratio
1990	42,869	2,195	822	1,373	59.8
2000	47,008	3,395	1,300	2,095	62.0
2010	49,554	5,366	2,194	3,172	69.2
2017	51,446	7,076	3,006	4,070	73.9
2020	51,974	8,134	3,515	4,619	76.1
2030	52,941	12,955	5,876	7,079	83.0
2040	52,198	17,120	7,892	9,228	85.5
2050	49,433	18,813	8,742	10,071	86.8
2060	45,246	18,536	8,846	9,690	91.3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은 1990년대 이후 역학 연구가 시행되어 보고된 바 전체 유병률은 6.3%에서 13.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8.4%이고, 421만명으로 추산되며, 2050년 2,127만명(전체 노인의 15%)까지 증가가 예측된다.

Table 2. The prevalence of dementia and the number of dementia patients in the elderly over the age of 65

years	2008	2012	2020	2030	2050
Dementia patients (persons)	421,387	521,516	749,719	1,135,441	2,127,491
Prevalence of dementia(%)	8.40	9.08	9.74	9.61	13.17

### 2.2 치매환자의 의료·요양서비스 이용 증가

#### 2.2.1 의료서비스

2014년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치매환자는 443천명(65세 이상 416천명, 65세 미만 27천명)이고 연평균 20%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건강보험 미적용 항목 제외)는 2014년 1조 6,142억원, 1인당 진료비는 364만원 수준(건강보험공단,2015)이다. 치매진료 인원은 2006년 105,253명에서 2014년 442,855명으로 연평균 19.7%씩 증가되었다. 치매진료비는 2006년 1,898억원에서 2014년 1조 6,142억원으로 연평균 30.7%씩 증가되었다. 1인당 치매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2006년 180만원에서 2014년 364만원으로 증가되었다[8].

#### 2.2.2 요양서비스

2014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435천명) 중 치매환자는 236천명(이용자의 54.3%)이고, 연평균 10%씩 증가되는 추세이다.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장기요양비용은 2014년 2조 4,133억원으로 전체의 58%에 해당된다. 1인당 평균 요양비용은 1,023만원 수준이다. 치매환자는 2009년 145,611명에서 2014년 235,844명으로 연평균 10.1% 증가되었다. 치매환자의 장기요양비의 경우 2009년 1조 1,757억원에서 2014년 2조 4,133억원으로 연평균 15.5%가 증가되었다. 그리고, 1인당 치매환자의 장기요양비는 2009년 807만원에서 2014. 1,023만원으로 증가되었다[9].

조기검진 및 꾸준한 치료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관련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 치매환자의 의료·요양서비스 이용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치매환자의 질환특성 및 증상에 맞는 의료·요양서비스 제공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2.3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주요내용

제3차 종합계획은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나, 수요자 관

점에서 보다 촘촘한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 치매 중증도에 따른 돌봄경로(Care Pathway)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OECD가 제시한 '10대 치매관리 핵심정책'을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치매환자 돌봄경로는 주로 일반인→고령자→고위험군(독거노인, 인지저하자등)→경증중등도치매→중증생애말기치매 등 진행경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치매관리사업은 주로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장기요양) 및 복지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다소 제한적이었다고 본다. 이에 제3차 종합계획은 보건의료 분야를 통한 치매환자 맞춤형 치료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복지와 보건의 균형잡힌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였다. 이와 더불어,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과학적 근거 및 통계에 기반하여 정책내용 및 대상을 설정하고, 이를 최대한 계량화하여 정책의 효과성 제고 추진하였다. 구체적인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은 4대 분야 하위에 10개 영역의 38개 과제 도출로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관리, 둘째, 편안하고 안전한 치매환자 진단 치료 돌봄 제공, 셋째,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넷째, 연구 통계 및 기술을 통한 지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 2.4 치매관련 선행연구

치매연구에 대한 기존연구는 예방 및 관리, 치매의 치료로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특히 치매치료와 관련된 연구는 재활 및 의료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치매예방 및 관리는 보건복지, 심리 분야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매예방과 관리 등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의 대부분은 치매노인의 일반적인 생활습관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성민 외(2014)의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체질량수 및 운동량 등이 생활습관과 유사관련성이 있어 치매의 유발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10]. 하은호 외(2011)의 연구에도 치매노인들을 대상으로 운동과 체중, 그리고 음주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생활습관이 관련성이 높아 인지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tek. 이러한 특성은 요실금 등 우울증도와 같은 건강요인들이 인지장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1]. 우울과 치매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서경현 외(2009)의 연구는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부담은 신체적 증상과 우울정도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특히 우울증상은 고숙정 외(2013)의 연구에서 치매유발요인이지만, 치매환자를 통해서 부양가족들의 동반 우울정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13]. 또한, 사회적 지지가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현주 외(2015)의 연구결과도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부양부담에 있어서 완충작용이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사회지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치매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과 지원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바 치매환자 및 가족들에 대한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와 정부지원 등이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과 지역사회 협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매교육의 해결방안의 모색과 치매돌봄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확대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연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치매관리기능에 있어 우울정도를 포함한 생활습관의 관리, 치매관련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지식정보의 향상, 가족 부양자들의 경제부담 감소 등 사회의 지원과 사회적 지지의 증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핵심주제어(key word)에 따라 분류된 연구논문이다. 검색 키워드는 '치매관리'이며 연구목적상 노인의 치매관리정책, 그 중에서도 생활 속 치매예방 실천 지원,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3대 치매 고위험군 관리 및 지속적 치매조기발견 지원으로의 치매예방 및 관리적 측면을 다룬다. 즉, 치매관리정책에 관한 연구논문만을 선별하여 분석하되 이러한 현상을 지칭하는 '치매예방, 치매관리, 치매관리정책'과 같은 핵심어를 제시한 연구논문 역시 연구대상에 포함토록 한다.

'치매'에 관한 기존 연구의 정의를 보면, 치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뇌손상에 의해 기억력을 포함한 여러 인지기능의 장애가 생겨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 할 수 없

는 상태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15].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0~2017년의 17년간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자료는 카인즈를 통해 수집하였다. 상세 검색 기능을 통해 검색키워드를 ‘치매관리’로, 언론보도 기간은 2000~2017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언론매체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Table 3. Frequency analysis of key words in dementia management policy-related papers

Division	period	Establishment date	Remarks
Primary dementia comprehensive management measures	2008-14	2008.8	War with dementia
Comprehensive plan for secondary dementia management	2012-15	2012.11	Enactment of the Dementia Control Act
3rd Dementia Management Comprehensive Plan	2016-20	2015.12	Care pathways for dementia patients

Analysis period: 2000 ~ 2017

### 2.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방식을 적용해 치매관리정책에 관한 최근 연구경향을 분석한다.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Network Text Analysis, NTA)은 TEXT에 출현하는 단어 간의 관계를 링크로 표시함으로써 구축되어지는 네트워크를 통해 규칙적인 사회일반적 현상을 해석하는 분석 기법이다[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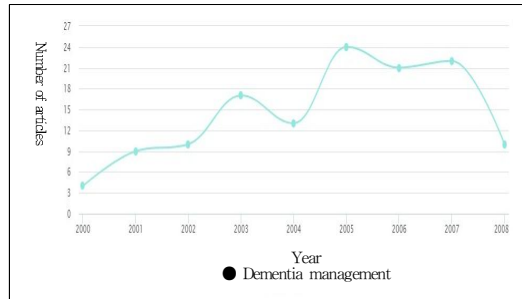
이러한 내용분석 도구와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분석 도구를 연계하여 언론보도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16, 17]. 본 연구에서는 내용 분석을 위한 도구로서 ‘워드클라우드’를 표현하는 프로그램의 일종인 빅카인즈(Big Kinds)’를,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서는 유시넷(Ucinet) 외에 ‘넷마이너 4(NetMiner 4)’를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수행한다.

연구의 결과 도출을 위하여 ‘빅카인즈’를 분석 도구로 사용하였다. ‘빅카인즈(Big Kinds)’의 7개 언론사 중앙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에서 제공되는 뉴스, 뉴스 히스토리 등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3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3.1 핵심어 트렌드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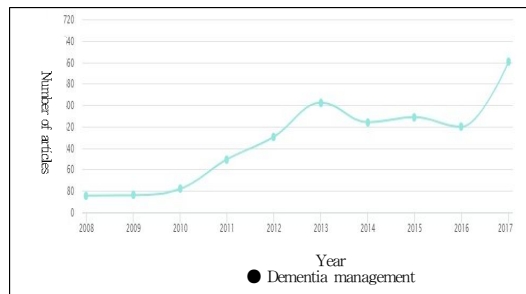
최근 20년(2000~2017) 간 언론보도된 치매관리정책에 관한 핵심어의 출현빈도를 ‘빅카인즈(Big Kinds)’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시기별로 구분해 Fig. 1, Fig. 2와 같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치매관리정책 경향의 하위 영역인 ‘치매관리’의 신문기사 언급추이는 Fig. 1과 같다. 2005년 가장 높은 상승폭과 빈도수를 기록하였는데 2007년까지 치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인 2000~2008.8년 기간 중 전체 출현빈도는 총 133회(2005(24회), 2007(22회), 2006(21회), 2003(17회), 2004(13회), 2002(10회), 2001(9회), 2000(4회)) 순으로 많았다.



period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frequency	4	9	10	17	13	24	21	22	10

Fig. 1. References to dementia management related media reports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8.8~2017.12년 기간 중 전체 출현빈도는 2,676개로 나타났다. ‘치매관리’의 신문기사 언급추이는 문재인정부의 출범과 정책공약으로 인해 2017년에 가장 많은 562회 출현빈도를 보였다. 그리고 ‘2013(409회), 2015(355회), 2014(336회), 2016(319회), 2012(282회), 2011(198회), 2010(88회), 2009(64회), 2008(63회)’순으로 출현빈도가 많았다.



period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frequency	63	64	88	198	282	409	336	355	319	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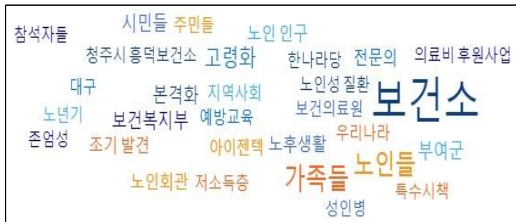
Source: Big Kinds Program Provided Trend Analysis

Fig. 2. References to dementia management policy related media reports

### 3.2 연관어 분석 결과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 도구로는 워드클라우드 표현을 지원하는 ‘빅카인즈’를 활용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입력된 텍스트에 출현한 단어의 빈도수를 산출하는 한편 이를 시각화된 이미지로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워드 클라우드의 ‘빅카인즈’의 기사 빈도 중에서는 ‘보건소, 가족들, 노인들’이 가장 크게 시각화되어 세 단어를 직관적으로 연결해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치매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단어를 통해 그 관련성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이해당사자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역 명칭을 크게 보여 줌으로써 그 지역의 치매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리적인 부분이 높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워드 클라우드 내용은 Fig. 3과 같다.



Source: Big Kinds program provided Word cloud

Fig. 3. The main topic of the media report on dementia management policy cloud (2000 ~ 2008.8)

워드 클라우드의 ‘빅카인즈’의 기사 빈도 중에서는 ‘보건소, 보건복지부’가 가장 크게 시각화되어 두 단어를 직관적으로 연결해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치매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단어를 통해 그 관련성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이해당사자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역 명칭을 크게 보여 줌으로써 그 지역의 치매관리에 대한 관심과 관리적인 부분이 높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워드 클라우드 내용은 Fig. 4와 같다.



Source: Tagxedo-Creator Program Word Cloud

Fig. 4. The main topic of the media report on dementia management policy cloud (2008.9 ~ 2017.12)

Table 4는 2000년~2017년 기간 중 치매관리와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한 워드클라우드의 시각화된 결과물을 기반으로 키워드별 가중치를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워드클라우드의 시각화된 결과물의 키워드별 글자의 크기는 가중치에 비례하여 정하여 진다.

가중치는 토픽랭크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개념에서 복합명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가중(Weight) 함수와 쿼리(Query)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는 거리계산의 가중 용어빈도(Weighted term frequency)를 말한다. 또한 문서 빈도(Document frequency)를 이용하여 계산되는 것으로서 가중치가 크면 클수록 뉴스기사의 출현빈도와 중요도 등 기본 뉴스 검색어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4. The results of weighted analysis of key word words of media reports on dementia management policy (2000 ~ 2017)

2000.1-2008.8			2008.9-2017.12		
ranking	Keyword	weight	ranking	Keyword	weight
1	Public Health	26.35	1	Public Health	129.32
2	families	14.2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01.52
3	The elderly	13.62	3	Aging	52.53
4	Aging	8.53	4	Center chief	46.8
5	Buyeo County	5.68	5	Early screening	45.33
6	Citizens	4.94	6	Early discovery	44.53
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87	7	importance	33.5
8	Old age life	4.62	8	Mother and Child Health	33.46
9	Early discovery	3.91	9	Mental health	31.79
10	Old man's hall	3.81	10	The elderly	26.86
11	A professional doctor	3.81	11	Jeollabuk-do Province	25.83
12	Elderly Population	3.75	12	Health Services	25.63
13	Dignity	3.43	13	Ordinance	25.26
14	Senile disease	3.33	14	Residents	25.08
15	Low income	3.33	15	Excellent institution	24.37
16	Residents	3.11	16	Smoking Cessation Business	23.16

17	Dae-gu city	3	17	Elders	22.58
18	Old age	2.86	18	Dae-gu city	21.93
19	Health Center	2.86	19	Improved awareness	21.24
20	Cheongju City Heungduk Health Center	2.57	20	Senility	21.1
21	Special Measures	2.53	21	Geriatric depression	20.11
22	AisenTech	2.53	22	Busan city	20.08
23	Preventive education	2.4	23	Elderly Population	18.81
24	Community	2.4	24	Chungbuk province	18.08
25	riatric disease	2.31	25	families	16.55
26	Medical expenses support business	2.31	26	A hospital director	16.49
27	Grand National Party	2.31	27	Business agreement	14.31
28	Republic of Korea	2.31	28	Customized	13.22

Note: Weight

### 3.3 핵심어 네트워크 구조분석 결과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치매관리정책, 치매관리정책, 치매예방, 치매관리, 치매관리정책’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의 주제어 간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였다. Fig. 4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인 유시넷(Ucinet)을 이용해 도식화한 것으로서 연결중심성이 크면 노드의 크기 역시 커지고, 동시 출현빈도가 높은 노드 사이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가깝게 표현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224개의 핵심어 노드 사이에는 ‘치매, 치매관리정책’을 허브로 하는 단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각 핵심어의 연결중심성 지수는 0.27, 0.18, 0.14, 0.12, 0.10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핵심어 빈도분석 결과에서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핵심어는 ‘보건소’인 반면 네트워크 분석결과에서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은 핵심어는 ‘보건복지부(0.27)’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의 치매관리정책과 관련한 현상을 ‘치매’으로 표현하는 언론보도가 다수이며, 언론보도내용 측면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치매관리 목적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방 및 관리의 관심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함을 시사한다.

‘치매관리’이라는 용어는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용어로서 최근의 치매관리정책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단어이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정책관심도의 변화이다. 핵심어 네트워크 분석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치매관리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치매관리정책’으로 포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치매관리정책을 설명할 때는 용어의 선택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5. Connection centrality and mediation of key words (2000 ~ 2017)

rank	Keyword	Connection centrality	Mediation centrality	rank	Keyword	Connection centrality	Mediation centrality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0.27	0.20	12	Guangmun g city	0.03	0.01
2	Seoul City	0.18	0.16	13	Medical law	0.03	0.01
3	Jeollabuk-do Province	0.14	0.14	14	Jeollabuk-do Province	0.02	0.00
4	Jeonju city	0.12	0.11	15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0.02	0.01
5	A hospital director	0.10	0.06	16	Gyeongsan City	0.02	0.01
6	Dementia Management Act	0.08	0.05	17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0.01	0.00
7	nurse	0.06	0.05	18	Ulsan Metropolitan City	0.01	0.01
8	Lee Ae-Young	0.06	0.04	19	Health Insurance Review and Evaluation Center	0.02	0.00
9	Inhoo-dong	0.05	0.03	20	Jeollanam-do Province	0.02	0.00
10	Social Worker	0.04	0.02	21	Samsung Life Insurance	0.02	0.01
11	Director of Wide Area Dementia Center	0.04	0.02	22	Gyeonggi-do Province	0.02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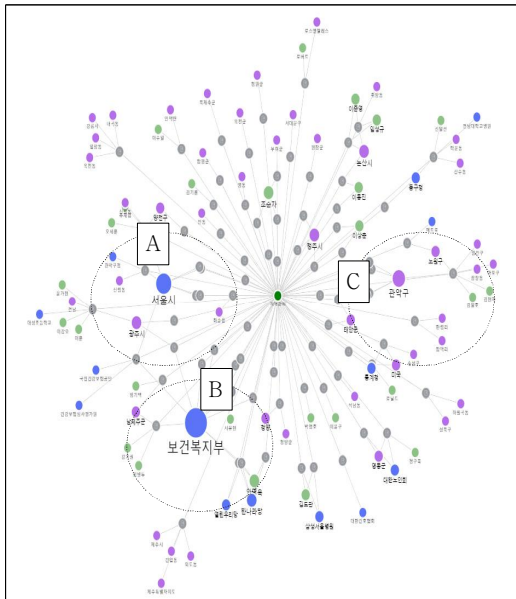
Note 1: Only key words with link centrality greater than 0.02 are displayed.

Note 2: Ranking is based on connection centrality.

치매관리정책과 관련한 224개의 핵심어는 ‘치매관리’의 3핵심어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단일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각 핵심어의 매개중심성이 높기 때문인데,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은 핵심어는 ‘보건복지부(0.27)’이며 뒤이어 ‘서울시(0.18), 전라북도(0.14), 전주(0.12), 병원장(0.10)’ 순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클러스터는 이해하기 쉽게 A~C로 분류하였다(Fig. 5참조).

먼저 클러스터 A는 ‘치매관리’를 설명하기 위해 ‘공간계량모형, 군집분석, 요인분석’과 같은 분석방법을 통해

치매관리기관을 위한 ‘중앙정부기관의 보건복지부’와 같은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클러스터 B는 지자체인 서울시를 중심으로 관련 핵심어가 연계되어 있다. ‘로봇모형’과 같은 분석방법과 함께 ‘양친구, 신림동’과 같은 지자체 주제어와 연계되어 있다. 클러스터 C는 ‘관악구’를 설명하기 위해 ‘코호트방법, 로그선형모델, 회귀전환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광진구, 노원구’와 같은 주제어들과 연계되어 있다.



Note 1: The connection centrality of the whole network is 19.54% and the median centrality is 14.12%.

Fig. 5. Network Structure of Keywords (1997 ~ 2016)

#### 4.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치매관리정책의 경향을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치매관리’를 군집화 한 후 각각 인터넷 검색엔진 검색량과 신문기사 언급 추이를 분석하였다. 언론보도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치매관리정책에 관한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치매관리정책을 설명하는 두 가지 주요 흐름으로서 치매예방과 관리의 결정을 개인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 미시적 관점과 지역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 거시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치매관리정책에서는 중앙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서

울시를 비롯한 전라북도가 우선적인 관심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치매관리 관련 검색량은 2010년 이후 매년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계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예방활동과 시장조사의 시기,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치매관리정책을 장려할 중앙정부의 종합대책과 함께 별도로 지역특성을 특화한 지자체별 치매관리정책의 병행이 요구된다.

국민들의 인식 및 정책성과, 그리고 선진국의 치매관리정책 흐름을 고려했을 때 ‘치매관리, 예방’을 포함한 치매관리정책 현상은 국지적·일시적인 것이 아닌 향후 치매관리정책의 주요흐름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치매관리정책에 관한 언론보도 경향을 분석한 이번 시도는 치매관리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으로 시의 적절했던 과제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언론보도 매체문헌 분석에 국한되어 있어, 이미 치매관리정책의 흐름을 경험하고 있는 외국의 선진사례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이었던 연결중심성 및 매개중심성 지수가 전반적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해당 지수가 측정값의 절대적인 신뢰수준이나 설명력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핵심어 간 비교를 위한 상대적인 측정값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왜곡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본문에 반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연구에서는 외국문헌을 포함한 학계의 연구동향 분석과 함께 해당 측정값이 낮게 측정된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REFERENCES

- [1] D. Y. Ahn, K. D. Seo & I. K. Choi. (2017). A Study on the Use Behavior of the Elderly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with Moderate Dementia: Focusing on the Satisfaction of Memory School User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1), 353-361.
- [2] I. K. Choi. (2016). A Study on the Linkage Model of Elderly Protection System in the Community: Focusing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6), 259-26.
- [3] <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 [4] J. K. Park. (2015). Factors Affecting the Cognitive Level



of the Elderly in the Community,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6(6), 153-162.

- [5] <http://www.riss.kr/index.do>
- [6] S. Baik, J. S. Won & M. C. Kim. (2017). A Convergence Study of Korean Adults'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 Dementia,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9), 191-197.
- [7] K. Han & E. K. Kim. (2017). Correlation between dementia knowledge, attitude and nursing burden of dementia support center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9), 67-75.
- [8] A. J. Park. (2018). Knowledge of dementia, attitude toward empathy and dementia in dementia caregive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 389-397.
- [9] K.R. Go. (2017). War on Dementia in the Age of Aging, National Responsibility to Dementia, *Korean Local Administration Association*, 66(769), 8-9.
- [10] S. M. Kim & H. J. Seo. (2014). Dementia-Related Factors in Adults over 60 Years of Ag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4(4), 391-397.
- [11] Y. H. HA, H. J. Seo & M. R. Sung. (2011). Cognitive Impairment Factor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18(3), 317-32.
- [12] K. H. Seo & A. W. Lee. (2009). Stress and Stress Response of Patients with Dementia, Physical Health and Mental Health: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7(2), 111-120.
- [13] S. J. Shin & S. H. Lee. (2013). The Effects of Dementia Knowledge, Self-Efficacy, and Depression on the Prevention of Dementia in Elderly Coupl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2), 276-28.
- [14] H. J. Lee, J. W. Lee & J. Y. Lee. (2016). A Study on the Dependent Burden of the Family Caregiver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s*, 26(1), 457-367.
- [15] <http://blog.naver.com/hj757600/220857724478>
- [16] Y. C. Choi, Park & S. J. Park. (2011).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pplication of Network Text Analysis Method,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1), 123-139.
- [17] Siram. (2015). Social Network Analysis Using NetMiner - Basic Course, Siram.

최 인 규(Choi, In Kyu)

[정회원]



- 2000년 2월 :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 2011년 2월 :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 2016년 3월 ~ 2018년 2월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2009년 3월 ~ 현재 : 대구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정책, 노인보호, 치매노인
- E-Mail : inkyu8008@daum.net

서 경 도(Suh, Kyung Do)

[중신회원]



- 1987년 2월 :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 2012년 8월 : 금오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금오공과대학교 경영학과 연구교수
- 관심분야 : 산업빅데이터, 고령친화산업, 마케팅
- E-Mail : bumsoskd@hanmail.net

김 덕 환(Kim, Duck Hwan)

[정회원]



- 2010년 8월 :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과학수사학(과학수사 석사)
- 2016년 2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경찰학박사)
- 2018년 8월 ~ 현재 :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 관심분야 : 과학수사, 범죄학, 교통행정, 노인자살
- E-Mail : duckhwan89@naver.com

최 주 근(Choi, Ju Keun)

[정회원]



- 2015년 2월 : 경일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 2018년 2월 : 경일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대구과학대학교 국방기술행정학 외래교수
- 관심분야 : 노인정책, 지역사회복지, NGO
- E-Mail : choijk776@daum.net